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RICOH GR IV Monochrome



@fotorohsh

“색을 덜어낸 자리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빛의 묘사에 몰입해보세요.”





촬영부터 비대면 셀렉, 컨펌, 추가수익까지

모두스쿨 하나로 완벽하게



스마트촬영 & 자동네이밍

- QR보드 or 태블릿 촬영으로데이터에 학생 정보 매칭
- 파일명 노가다 탈출! 파일명 변환 1초 컷
- 엑셀 명렬표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자동 분류

- NAS 연동으로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한 번에 일괄 업로드
- 학교·학생별 자동 폴더 분류로 이메일/웹하드보다 압도적 편리함
-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 끝



비대면 셀렉 & 컨펌

- 학생별 계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셀렉
- 스튜디오, 학교가 실시간으로 결과 공유 및 확인가능
- 수정 요청 및 소통을 위한 메모 기능 탑재



추가수익

학부모 원본판매

- 민원·결재·CS 모두스쿨 전담 작가님은 정산만 신청
- 판매 여부 및 금액 자율 설정 (학부모 대상 원본 판매)
- 판매 수익금의 70% 정산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학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개별 보안 계정 접속 | 데이터 암호화 | 저작권 보호용 자동 워터마크 | 시즌 완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AI 이미지 보호 및 딥페이크 오염 방지 기술

동적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사진업로드시 사이트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자동 워터마크 설정 기능

무단 유출된 파일 경로를 추적하고 캡처를 방어하여 원본 가치를 지킵니다.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 전문 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i.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Leader Company of Seoul



글로벌 강소기업
The Leader Company of Korea



INNOBIZ
기술혁신명품소기업

중고 사진기구 전문 판매 및 교환 전문 알뜰매장

“안 쓰는 사진기자재 무조건 삽니다”



- ① 대형카메라 및 필름카메라 매입
- ② 디지털 카메라, 렌즈 매입 및 보상판매
- ③ 고장 또는 성능이 떨어져 사진이 잘 안나오는 스트로보(외제, 국산)를 교환 및 수리 (무료출장 A/S 회원에 준함)
- ④ 각종 스탠드 수리 및 교환
- ⑤ 각종 배경 및 소품 파격적 가격
- ⑥ 예식장홀 스트로보 설치공사 및 수리
- ⑦ 스튜디오 매매
- ⑧ 스튜디오 기사 취업 알선

서울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현대뜨레비앙 B101호

02-3675-6698 FAX 02-745-0094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www.gana2000.co.kr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EOS R6 EOS R5 EOS R EOS R8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승호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드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혼자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여러분,
보궐선거를 통해 제40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경희입니다.

먼저, 협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시작하는 협회장의 임무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닌, 우리 협회가 당면한 산적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진산업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라는 회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자 간절한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만큼, 저는 취임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뒤로하고, 오직 협회의 미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수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로 우리 사진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의 마케팅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퍼스널컬러” “입체복원사진 자격증교육” “6·25영웅사진” “청춘어게인”을 통해 “사진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협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프로사진가 사단법인 단체로서 그 권위와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외부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회원들이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길을 만들지만,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희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잔여 임기일지 모르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일하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26 VOL. 579

PRO portrait

발행인 겸 편집인

발행인 이경희 협회장
발행일 2026년 4월 1일
창간일 1977년 9월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TEL (02)4545-600(대)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_kppa1955 / PW_1234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인쇄 천상영(주식회사 도서출판 더블유)
온라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KPPA's 협회소식

第40代 補闕 會長選出 總會

40대 보궐 회장선출 총회에서 이경희 회장 선출...

12



< 제목 : Where Silence Becomes Prayer >
(침묵이 기도가 되는 곳)

< 작가노트 >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울림이다.
이 작업은 고요 속에서 완성되는 기도의 순간을 담고자 했다.

< 작가소개 : 방상은(Bang Sangeun)>

- PPA MASTER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권두언

8 새로운 도약, 함께 만드는 한국프로사진협회

KPPA's 협회소식

12 제40대 보궐 회장선출 총회

17 제40대 교육자격위원회

10 www.kppa.co.kr

CONTENTS

월간 Pro Portrai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간 Pro Portrait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협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8

18 KPPA's 인상 순수 사/진/전

Kppa's 지회소식

- 28 서울지회 - 제18대~19대 지회장 이·취임식
- 30 인천지회 - 봄맞이 회원 가족 단합대회
- 32 청주지부 - 월례회 및 사진관 탐방



30

34 KPPA's 풍경사진 사/진/전

Kppa's 타임머신

- 40 개(犬)초상사진 VS 애견사진



32

44 KPPA's 선배님 사진

Kppa's EDU

- 46 거친그림자(Harsh Shadow) 제거 방법



40

第40代 補闕 會長選出 總會

40대 보궐 회장선출 총회에서 이경희 회장 선출...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이해승 복지위원장, 협회주재기자



▲ 보궐선거 진행 모습

지난 3월 20일 협회회관에서 제40대 보궐 회장 선출 총회가 열렸다.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자는 한강일 선거관리 위원장, 김동일 위원, 김상열 위원, 김선식 위원, 류태열 위원, 박용호 위원, 손무수 위원, 이대원 위원, 홍병섭 위원이며, 조규영 고문, 박성열 고문, 육재원 고문, 권용욱 명예회장, 장광동 감사,

김천식 수석부회장, 이만식 부회장, 정대홍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홍상표 재무위원장, 이해승 복지위원장, 신건정 서울지회장, 김경환 대구지회장, 이창훈 제주지회장,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정상렬 서울지회 감사 김영규 서울지회 감사, 이성환 서울지회 운영위원이 참석하였다.

보궐 회장선출 총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도 하였다. (촬영 및 중계: 박용호 선관위원, 서울지회 고문)



▲ 중계모습



▲ 이경희 협회장 당선자 연설



▲ 이경희 후보자

선관위 경과보고는 이동재 간사가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협회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2026년 1월 8일 정기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현 회장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집행부에서 지난 26년 1월 23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그 자리에서 현 회장인 전병재 회장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인 단체인 우리 협회는 회장 공석 사태를 보완하고자 정관 제11조에 의거 곧바로 이봉희 수석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정기 대의원 총회를 앞둔 우리 협회는 시간의 촉박함을 함에도 동요하지 않고 곧바로 정관 제16조 3항에 보궐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 한강월 선관위원장

이동재 선관위 간사의 사회로 시작한 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로 시작하였다. 직무대행 이봉희 수석부회장을 대신하여 권용욱 명예회장이 선출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한강월 선관위원장은 “오늘은 우리 협회 잔치날입니다.”라며 참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마음껏 즐기고 정담도 나누면서 선출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였다.

박성열 고문은 격려사에서 여건 속에서도 선거 일정을 관리해 주신 이봉희 권한대행, 선관위, 협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신 이경희 후보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고문님은 아쉬운 점으로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절차 없이 선관위원장이 당선을 선포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정관과 정보 규정을 정비하여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출 구조로 복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사회이동재 선관위 간사



▲ 권용옥 명예회장 직무대행 인사



▲ 박성열 고문 격려사

총회 날인 2026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월 19일 후보 등록, 3월 20일 회장 선출을 하기로 하고 총회에 상정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13시에 실시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상기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후보 등록과 관련한 회의로 지난 2월 6일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2월 19일 제2차 회의 중 16시 50분경 서울지회 이경희 지회장께서 후보 등록을 의뢰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관 제16조 3항에 의거 오늘 우리 협회 제40대 보궐 회장 선출 총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당선증 전달



▲ 권용옥 명예회장 협회기 전달



▲ 선관위원



▲ 위원장 간담회

경과보고에 이어 이경희 후보자의 소신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경희 후보자는 사무실에서 협회까지 지하철 7호선으로 1시간 소요된다면서 말문을 떴었다.

협회에 올 때마다 임원 수첩에 있는 정관을 읽어보는데 20년 동안 습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정관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몸은 직선제로 돼 있는데 옛날 체제는 간선제로 돼 있습니다.”라며 앞뒤가 안 맞다고 하였다.

시대가 바뀔 때 수정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의견 수렴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협회에 와서 사소한 문고리 고장 난 것을 드라이버로 수리하면서 사소한 것부터 보완 개선하고 우선순위의 일을 생각하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혼자 가면 길을 만들지만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새기며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협회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 하길 호소하였다.

소신 발표에 이어 선거공약에 관련 질의 사항 시간에 조규영 고문은 이경희 회장이 너무 직진하는 성격이라 옆을 돌아볼지 그런 생각이 염려하고 있지만 성격이 화끈하고 또 추진력도 있고 행정력 사무 능력도 있는 협회장이라서

잘하리라고 믿고 1년 남짓 되는 기간에 잘하라는 격려를 하였다.

육재원 고문은 협회가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자청해서 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신 있게 일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경환 대구지회장은 질의 사항 시간에 4대 공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였다.

이경희 후보자는 조합을 설립하여 성동구청 가족사진 캠페인 행사로 지원받은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2025년도 택배비 지원사업, 문화누리 카드사업, 바우처 사업 6.25 참전 용사 촬영 등을 설명하였다.

모든 질의가 끝나고 한강월 선관위원장은 당선인 선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단독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 규정 제6조 8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으로 이경희 후보를 보궐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협회기를 힘차게 흔드는 이경희 회장

이어 당선증 전달을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선증 제2026-000호 제40대 회장 이경희.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정관 제11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6조에 의거 2026년 3월 20일 실시된 보궐 회장 선거 결과, 제40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권용옥 명예회장 협회기 전달하였으며 이경희 지회장은 협회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 육재원 고문 의사봉 전달

이어 육재원 고문이 의사봉 전달하였고, 조규영 고문이 회장 명패 전달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행사를 마치고 이경희 협회장은 김천식 수석부회장, 정대홍 총무 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홍상표 재무위원장과 위원장 간담회를 하였다.



▲ 조규영고문 명패 전달

협회소식. 2

제40대 教育資格委員會 교육자격위원회 온라인 회의

AI 활용 교육부터 조명 기술까지, 회원 니즈 반영한 '맞춤형 교육' 논의

취재 : 류수민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온라인 회의 모습

교육자격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3월 24일(화) 오후 8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2026 하계세미나'의 교육 방향성 및 운영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 이영진을 비롯해 연원석 이사, 정원진 간사, 유현수 위원, 류수민 위원, 안수민 위원, 윤영 위원, 이은주 위원, 심홍구 위원, 허재준 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사진 시장의 흐름에 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의 실무 접목'을 이번 하계세미나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이영진 위원장은 AI 프롬프트 활용 및 AI 증명사진 등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연결되는 4개 이상의 집중 강의 개설을 제안했으며, 4월 춘계세미나에서 AI 시범 강의를 우선 선보여 회원들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위원별 주요 국제세미나 강의 제안으로는

- ▲ 포토샵 AI 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리터칭 기법 및 광고 촬영용 프로페셔널 조명 도구 및 스킬 교육(연원석 이사)
- ▲ 제미니(Gemini) 활용 실무 사례 및 숏츠 홍보 영상 제작, 인물화 기법 접목 리터칭 및 저작권 교육(류수민 위원)

- ▲ 초보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AI 프롬프트 생성 및 적용법 (유현수 위원)
 - ▲ 챗GPT, 제미니, 이보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합 활용, AI 작업물을 가져오는 고객 대응을 위한 전문 AI 강의 필요성(이은주 위원)
 - ▲ 교육위원 자체적인 정기 AI 스터디 및 역량 강화(심홍구 위원)
 - ▲ AI 활용 고퀄리티 작업물을 통한 단가 인상 및 마케팅 전략(윤영 위원)
 - ▲ 장비별 특성에 따른 조명 배치법 교육, 최신 스냅사진 색감 및 후보정 프로그램 활용법(안수민 위원)
- 등이 논의되었다.

교육자격위원회는 오는 4월 20일 충북 청주 크림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춘계세미나를 통해 국제세미나의 구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을 확정 짓기 위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세미나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 제 목 : 칠순-꽃다운 지금

▪ 작가소개 : 강민정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부산광역시 지회 정회원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現 강언니스넵 대표



▪ 제 목 : 칠순-일상의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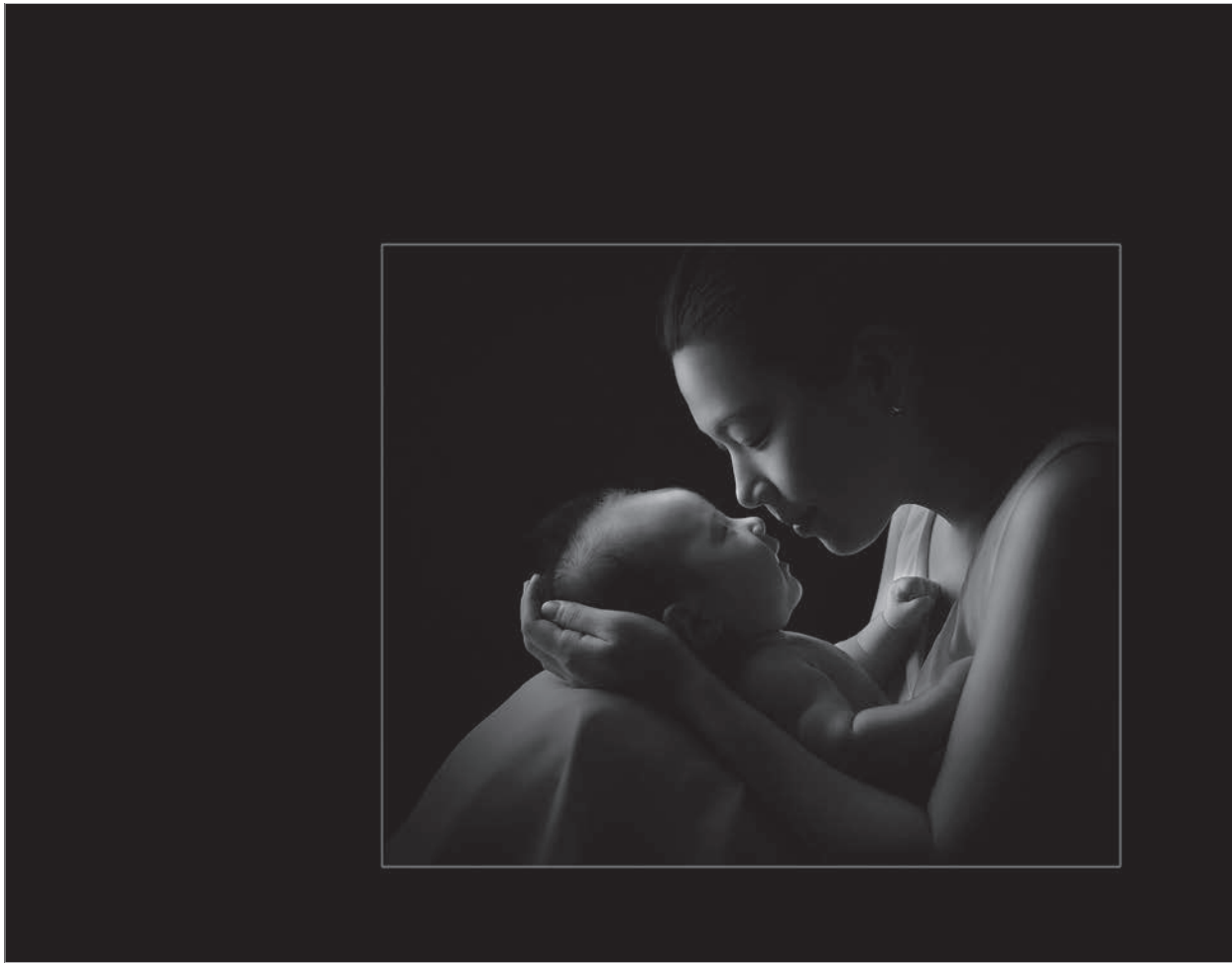


- **제 목** : Perfect team
- **작가노트** :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성되는 관계의 모습을 기록했다.
- **작가소개** : 류수민 추천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 現 감동사진관 대표



- **제 목** : 나의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 **작가노트** : 딸의 가장 빛나는 날을 위해, 아버지는 마지막 선물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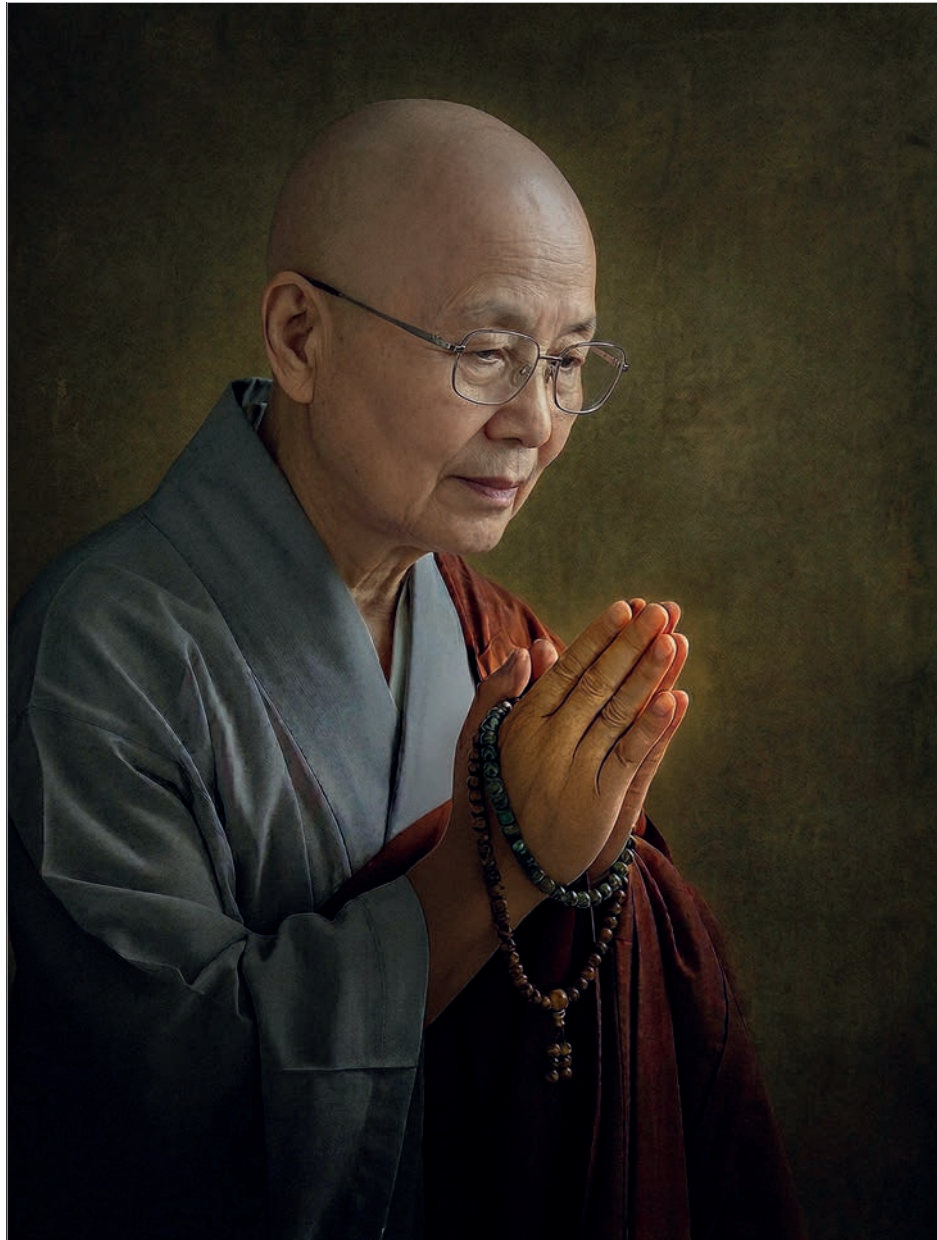
- **작가이력** : 류수민 추천작가
 - 2012년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상 수상
 - 2013년 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사진작가부문대상
 - 2015년 대한민국 스타예술대상 <사진부문 수상>
 - 2015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Medal
 - 2016년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Korea 작품상 수상



- 제 목 : mother hood
- 작가소개 : 박응태 추천작가
 - PPA MASTER PHOTOGRAPHER
 - 現 예산중앙스튜디오 대표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예산지부장



▪ 제 목 : This is life



- **제 목** : Where Silence Becomes Prayer(침묵이 기도가 되는 곳)
- **작가노트** :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울림이다.
이 작업은 고요 속에서 완성되는 기도의 순간을 담고자 했다.
- **작가소개** : 방상은(Bang Sangeun) 추천작가
 - PPA MASTER
 - 전자공학사, 사진영상학사, 상담심리학사
 - 시각디자인전공중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정회원
 -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 **제 목** : Weathered by Time(세월에 각인 얼굴)
- **작가노트** : 시간은 얼굴 위에 흔적을 남기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깊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의 교묘한 존엄과, 세월이 새긴 배고픔 이별 전쟁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 **작가이력** :
 - 문경사회복지관장 봉사상 수상
 - 중앙대학교 산교원장 공로상수상
 - PPK 작품상 수상
 - PPA BRONZE MEDAL 2회 수상
 - PPA GOLD MEDAL 1회 수상



▪ 제 목 : 한복 I

▪ 작가소개 : 이정휘 추천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 現 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 제 목 : 한복 II

▪ 작가노트 : 우리의 한복에 담긴 어머니의 삶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당신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잠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지키고 만들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초대합니다.

第18代~19代 서울특별시 지회장 離・就任式

서울지회 임시총회에서 신건정 지회장 선출해...

취재 및 사진 : 송진한 서울지회 副 事務局長



서울지회(지회장 신건정)는 지회 운영규정 제2장 3조 1항 5조 지회장 선출, 임무에 의거 지난 2026년 3월 20일 (금) 18시에 이취임식을 하였다.

참석자는 이경희 협회장, 김천식 수석부회장, 나영균 기획 위원장, 임병학 작가제도 위원장, 김인형 이사, 조규영 고문, 박성열 고문, 윤택중 자문, 백영욱 자문, 임만준 자문, 신건정 서울지회장, 한장훈 사무국장, 황희운 재무 국장, 송진한 부 사무국장, 김원기 수석부지회장, 이창직 부지회장, 김영우 부지회장(관악지부장), 정상렬 감사, 김영규 감사, 이성환 운영위원, 김재성 강동지부장, 강북 정경희 지부장, 이경우 광진지부장, 최용해 동작지부장, 이초금 성동·광진 지부장, 조환정 관악지부 총무, 조형준 작가가 참석하였다.

離任式

한장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식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순으로 이임식을 진행하였다.

이임사에서 이경희 협회장은 “협회가 당면한 산적한 과제 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진 산업의 파고를 슬기 롭게 넘으라는 회원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자 간절한 소망임을 잘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어 정상렬 서울지회 감사, 김영규 서울지회 감사는 이경 희 협회장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며 이임식을 마치고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 국민의례



▲ 협회장 인사말



▲ 취임사하는 신건정 서울지회장

就任式

취임식은 신건정 지회장의 취임 선서로 시작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회기 이양은 조규영 고문, 의사봉 이양은 박성열 고문이 하였다. 신건정 지회장은 지회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의사봉도 힘껏 두드리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취임사에서 신건정 신임 지회장은 이경희 협회장에게 10여년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지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사와 격려사는 조규영 고문, 박성열 고문, 김천식 고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경희 지회장은 신건정 지회장, 김원기 수석부지회장, 이창직 부지회장, 김영우 부지회장에게

인준장을 수여 하였다.

식을 마치고 서울지회 회원들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 신건정 신임 지회장 임명장 수여



▲ 박성열 고문 의사봉 전달



▲ 조규영 고문 지회기 전달



▲ 이경희 협회장에게 서울지회 감사 축하선물

인천지회 봄맞이 회원 가족 단합대회

회원 단합을 위해 인천대공원 캠핑장에서 열려...

취재: 홍춘석 인천지회 주재기자
사진: 오광진 인천지회 주재기자



인천지회(지회장 김학규)는 지난 2026년 3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인천대공원 야외캠핑장에서 제22대 인천지회 김학규 지회장 취임 후 두 번째 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인천지회 회원 가족 모두 함께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작년보다 많은 가족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인천지회 가족이 함께 모여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학규 지회장께서 내빈을 소개하였다.

내빈으로 임웅재 인천사진앨범협동조합 이사장, 21대 성덕현 인천지회지회장이 참석하였다.

임웅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2025년 인천지회 가족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는데, 올해도 많은 가족이 참가하여 너무 기쁘다.”라고 전하며 인천지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

22대 김학규 지회장은 개회사에서 휴일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들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2025년 단합대회 후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아쉬운 점을

보완하였으며, 단합대회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가족회원들에게 푸짐한 선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회원 모두 웃으며 게임을 즐긴 후 인천지회 임원들이 손수 준비한 고기를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시간을 가졌다. 테이블마다 고기 굽는 냄새와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캠핑장을 가득 채운 인천지회 가족들 모습을 보며, 김학규 지회장은 흐뭇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분리수거와 정리 정돈을 하는 모습은



▲ 김학규 인천지회장 인사말



▲ 게임하는 인천지회 회원들

역시 모범지회라는 자부심이 든다. 회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인천지회 김학규 지회장 이하 임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전하였다.



▲ 가족회원의 즐거운 모습

청주시지부

충북지회 청주시지부 月例會 및 寫眞館 探訪

월례회 및 연원석 교육자격이사 크림스튜디오 탐방...

취재 : 조인환 청주시지부 총무

충북지회 청주시지부(김영봉 청주시지부장)는 지난 3월 19일 목요일에 월례회 및 사진관 탐방을 하였다. 참석은 김영봉 청주시지부장, 조인환 청주시지부 총무, 김영동 협회자문, 오호근 협회자문, 연원석 교육자격이사, 문호영 충북지회장, 박흥순 충북지회 고문, 장대진 충북지회 고문, 박은서, 염동진. 우예환 회원이 참석 하였다.

Q. 스튜디오 운영 계기 및 철학: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인 '크림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만의 사진 철학이 궁금합니다.

90년대 초중반 뽀빠이포토라는 전국 어린이 사진 체인점을 하면서부터 인연이 되어 그 이후에 럭셔리포토까지 아기 사진만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림스튜디오가 탄생했습니다.

Q. 크림스튜디오만의 차별화 포인트 :

최근 베이비 스튜디오 시장이 치열한데요. 다른 곳들과 구별되는 크림스튜디오만의 독보적인 차별점(예: 인테리어 톤앤매너, 시그니처 콘셉트, 채광 활용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크림스튜디오만의 차별 포인트는 촬영 시 자연광만을 사용하지 않고 스누트 조명을 같이 사용하여 좀 더 입체감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또한 단독 2층 건물과 넓은 주차장 야외촬영이 가능한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림 스튜디오의 차별점입니다.

Q. 아기 촬영 노하우:

매거진을 보면 인물 사진은 피사체와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기들은 낮을 가리거나 컨디션 변수가 많은데, 아이들의 가장 자연스럽게 예쁜 표정을 끌어내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사진은 타 분야 사진 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아기 촬영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예전에 아기 케어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웃기는 방법은 아기마다 모두 다르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가림이 심한 아기들인 경우는 A4 정도 크기의 단단한 종이를 렌즈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내어 끼워서 최대한 촬영자가 아기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Q. 고객 신뢰와 단골 유지 비결 :

만삭, 50일, 100일, 돌까지 아기 사진은 성장 과정 내내 스튜디오를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과 지속적인 신뢰를 쌓고 발길을 다시 이끄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튜디오는 산부인과와 제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첫 방문 만삭 사진부터 고객의 설문지를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담 및 관리가 들어갑니다.

스튜디오 분위기 약 20년간의 지역사회에서의 스튜디오 평판, 모든 직원분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스튜디오의



▲ 월례회 진행



▲ 월례회 진행



▲ 크림스튜디오



▲ 식사모습

유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Q.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진뿐만 아니라 숏폼 영상이나 릴스 같은 형태의 기록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스튜디오 차원에서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나 새로운 니즈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아직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진 촬영 중에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 신에서의 동영상이 부모님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Q. 마지막 인사말 :

마지막으로, 앞으로 크림스튜디오를 찾아주실 예비 부모님들이나 아기 보호자들과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한 지역에서 20년 정도 아기 사진만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로서 기본적인 인지도는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고객에게 신뢰받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만 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함께 웃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봉은사에서 담은 흥매화와 흰매화 I

▪ **작가소개** : 윤종성 작가

- (사)대한기독교사진협회 이사장역임(고문)
- 現(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 現(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 現(사)한국사진작가협회 동작구지부 부 지부장
- 現(사)한국환경사진협회 회장
- 現스튜디오윤 대표



▪ 제 목 : 봉은사에서 담은 홍매화와 흰매화 II

▪ 작가이력 :

- 2024, 한화 불꽃축제 사진(대상)
- 2024, 영등포제 1회 사진공모전(금상)
- 2024, 여주생태사진 공모전(동상)



▪ 제 목 : 국가정원매화

▪ 작가소개 : 이용일 작가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 제 목 : 국가정원의 봄소식



▪ 제 목 : 바다 I

▪ 작가소개 : 이화춘 작가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현)
-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현)



▪ 제 목 : 바다 II

개(犬)초상사진 VS 애견사진

〈시간을 넘어선 대담: 1988 vs 2026〉

글: 한장훈 홍보위원장

[기획 머리말]

본지가 소중히 보관해 온 수많은 기록 중에서도 필자가 유독 애정을 가지고 탐독하는 칼럼이 있다. 바로 1988년 8월호 『사단』지에 게재되었던 박창근 작가의 시론(時論), **「개(犬)초상사진」**이다. 이 글은 38년 전, 한국 사진계가 굳건히 고수하던 '인상사진의 정통성'과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미국식 애견 문화'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 문화적 충격을 특유의 해학적 필체로 그려내고 있다.

당시 뉴욕의 한 사진관 쇼윈도에서 사람의 초상화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은 개의 얼굴을 보며 "인간 우롱죄"를 떠올리고, 미국인 점원과 "개(개)다!"라며 박장대소하던 박 작가의 모습은 우리 사진사의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만약 그가 시공간을 넘어 2026년의 대한민국, 즉 반려견이 사진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 오늘날을 마주한다면 어떤 소회를 밝힐 것인가.

본 특집에서는 박창근 작가의 1988년 당시 필체와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하여, 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건네는 가상의 목소리인 **「2026년판 박창근의 회고」**를 구성해 보았다.

과거에는 '우롱'이라 여겼던 것이 현재는 '문화'가 되었듯, 지금 우리가 직면한 AI(인공지능)와 같은 급격한 기술적 파동 또한 20년, 40년 후인 2046년에는 어떤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지 자문해 본다.

"2046년의 사진관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기 바라며, 아래의 글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기술적 화두를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격세지감(隔世之감): 1988년 뉴욕에서 "사람 우롱"이라 느꼈던 풍경이 2026년 한국 사진관의 일상이 된 모습에 깊은 격세지감을 표합니다.

반려(伴侶)의 의미 :

단순한 '애완'을 넘어 '가족(식구)'이 된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며, 사진이 담아야 할 대상이 확장되었음을 긍정합니다.

본질의 고수 :

대상은 '개'로 바뀌었을지언정, 사진가가 지켜야 할 '인상



사진의 품격과 '정도(正道)'는 변함없어야함을 강조합니다.

38년 전 뉴욕의 '개 초상화'를 다시 생각하며 1988년 8월호 사단지에 내가 뉴욕의 한 사진관 앞에서 겪었던 '기막힌 사연'을 실은 지도 벌써 38년이 흘렀다.

당시 나는 사람의 초상화 옆에 당당히 자리 잡은 개의 얼굴 사진을 보고 "사람 우롱죄"니 "철거 대상"이니 하며 핏대를 세웠었다.

점원과 "예스, 캐(개)다!"라며 박장대소하던 그 허허 벌판 같던 뉴욕의 거리 풍경이, 이제 2026년 서울의 골목마다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그때 내가 "지렁이 초상사진, 곰뱅이 초상사진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했던 걱정은, 이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자 '예술'이 되었다.

2026년의 사진관 쇼윈도에는 더 이상 개 사진이 사람 사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민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비싼 액자에 담겨 "우리 집 막내"라 불리며 사진관의 주인이 되어 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1988년의 박창근은 "한국의 인상사진은 건전하고 정도를 가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2026년의 나는 그 '정도(正道)'의 정의를 다시 쓴다.

당시엔 사람만이 사진의 주인공이라 믿었으나, 이제는 인간의 고독을 달래고 생을 함께하는 그 모든 생명체가 초상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38년 전 그 점원이 나에게 되물었던 "개 얼굴이라고 견본 사진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인공지능이 사진을 그려내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진가의 장인 정신'을 깨우는 죽비 소리처럼 들린다.

후배 사진가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2026년의 애견 사진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대상을 대하는 마음만은 1980년대 우리가 인상 사진을 대했던 그 '엄숙함'을 잃지 말길 바란다. 개를 찍든, 고양이를 찍든, 그것이 가족의 기록이라면 사진가는 최고의 기술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미국을 보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던 뉴욕의 그날로부터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 한국의 사진관은 여전히 밝고 희망이 있다.

그것은 대상이 '개'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식구'로 받아들이고 기록해 주는 우리 사진인들의 따뜻한 시선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기꺼이 웃으며 셔터를 누르자. "오! 예스, 개(犬) 초상화다!"라고 말이다.

原文 “개(犬) 초상사진” 〈New York에서 박창근 작가〉

미국은 무척 크고, 많아서인지 별에별 것이 다 있다. 좋은것도 나쁜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것이 거의 없다.

모두가 현대 문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물이라 하루가 다르게 신기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신기하고, 좋은 그리고 많은 것에 끼어 사람들은 자꾸만 침몰해 간다.

몸은 멀정한데, 정신은 소외되고 그래서 우습지도 않은 비극적인 일이 자꾸만 늘어간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완용 동물, 아니 생물 키우기가 극성을 피우고 있다.

우리가 아는 애완용 동물뿐만 아니라, 뱀, 개구리, 개미와 지네, 독거미, 그리고 굼벵이와 파리도 기른다.

그러다 보니, 개나 고양이는 이제 애완용이 아니고, 식구가 되었다. 그런 미국이라, 개와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극한 것이다.

하기야 오래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 뜰에서, 기르는 개가 귀엽다고, 무심코 귀를 잡아당긴 것이, 미국의 동물 애호가들의 눈에 띄어 큰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동물학대라는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곧잘 화제에 올리며, 동물을 학대한 대통령으로 몹쓸 존슨이라고 한다.

그정도로 애완동물을 사랑하니, 죽을 때 몇백만불의 유산을 기르던 고양이에게 몽땅 물려주어도, 누구 하나 놀라지 않는다. 아니 당연한 것으로 안다.

그런 미국이라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애완동물을 위한 별에 별것이 다 있다.

전용 식사 통조림은 물론, 식기, 장난감, 기저귀 그리고 옷 심지어는 치장용 액세서리 등 사람의 것을 흉내낸 물건들이 없는 것이 없다.

물론, 화장품도, 전용 거울, 빔에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카세트 테이프도 있을 정도니... 거리에, 가축 병원이 아닌 동물 요양소가 있고, 목욕탕에 미용실이 있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까?

그런데, 더욱 기가찬 것은, 애완용 개를 찍어주는 사진관이라고 할까? 아니, 애완용 개를 멋진 초상화로 찍어 달라고 했다고 할까? 하여간 그런 사진관이 제법 많다.

사진에서 보는 어느 사진관의 쇼우 윈도우 그것도 한가운데 점잖게(?) 버티고 찍은 사진은 人像寫眞이 아니라 犬像寫眞 즉, 개 초상화가 많은 정말 人像寫眞과 어울려서 자리잡고 있다.

우리네 상식으로 따지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즉각, 철거해야 되는 人間우롱죄가 된다.

그냥 사람과 함께 서있는 개 사진도, 사람사진속에 끼우기가 민망 할텐데, 사람같이 얼굴만 정면으로 찍은 개 초상 사진을, 그것도 사람의 초상사진의 한가운데에 모셔 놓다니... 될법이나 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여기 소개하는 사진은 트릭이 아니라 사실이고, 이것을 당연하게 아는 미국이니, 문제는 큰일인 것이다.

필자가 이 사진관 앞에서 하도 기가 막혀 족히 10여분을 서서 구경하니, 점원이 나와서,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이다.

그래서, "저 개 사진을 사람사진과 똑같이 취급하느냐?"니까, 당연한 일인데, 뭐가 이상하냐? 고 오히려 되묻는다. 그래서 "아무리 개 얼굴을 그럴듯하게 찍었기로서니, 사람얼굴과 나란히 전시하는 것은 사람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니... "

사람이나 개나 얼굴을 사진찍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개 얼굴이라고 견본사진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되물어, 필자는 "그럼 너도 개구나?"하고 웃으면서 한국 어로 말하니... 이 친구 말뜻은 모르고, 다만 내가 웃으며 이야기하자, 자기도 따라 웃으며, "캐쿠나! (개구나)" 다 그래서 내친김에 "Oh! yes your 개다"하며, 박장대소며, 그친구의 등을 두들겨 주니. 그 친구도 같이 따라 웃으며, "yes! 캐다! 캐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진관 앞에서 한참을 웃었다.

미국의 사진관 우리네 50년대 사진과 우리네 50년후의 사진 기술이 묘하게도 어울리고 있는 공존 시대에서 필자는 개 초상사진까지 보아야 되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미국을 만나고 있다.

이러다가는, 지렁이 초상사진, 굼벵이 초상사진도 사진관 쇼우 윈도우에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테니... 아직, 우리 한국의 인상사진은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정도를 가고 있으니, 우리의 인상사진의 내일은 밝고, 희망이 있다.



▪ 1999-07-73 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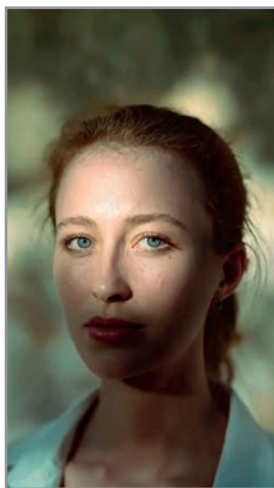
▪ 1969-08 성문산(成汶山) 서울

거친그림자(Harsh Shadow) 제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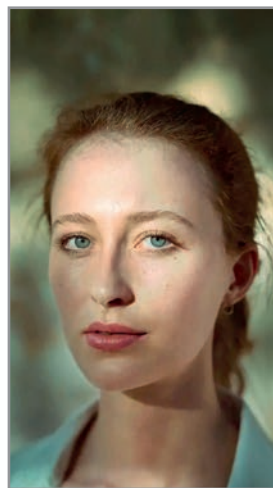
초보자도 3분 만에 자연스럽게 밝고 깔끔한 사진 완성하기

글: 조형준 작가

인물 사진이나 제품 사진을 찍다 보면 가장 흔하게 고민 되는 문제가 바로 강한 그림자(Harsh Shadow) 입니다. 특히 직사광선 아래서 찍은 사진은 얼굴이나 물체에 진한 그림자가 쳐서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딱딱해 보이죠. 이런 거친 그림자를 선택 → Exposure 조정 레이어 → 마스크만으로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실전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레이어 작업 없이도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적용전〉



〈적용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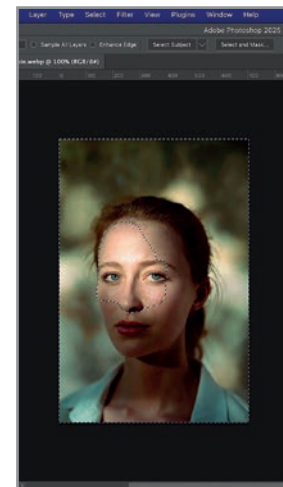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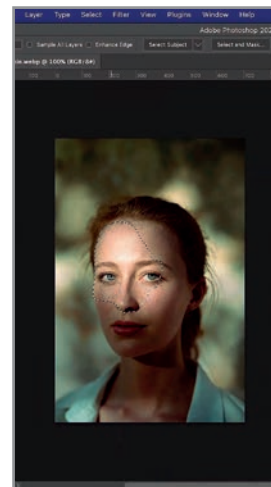
3. 사진에서 밝은 부분(그림자가 없는 영역) 을 거칠게 선택 합니다.

→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Tip: 브러시 Hardness는 60~80% 정도로 설정하면 경계가 부드럽게 잡힙니다.

4. 선택이 끝나면 Ctrl + Shift + I (선택 반전) 을 눌러 그림자 영역만 선택되게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그림자 부분을 직접 선택해도 됩니다.)



1. 준비 단계 - 그림자 영역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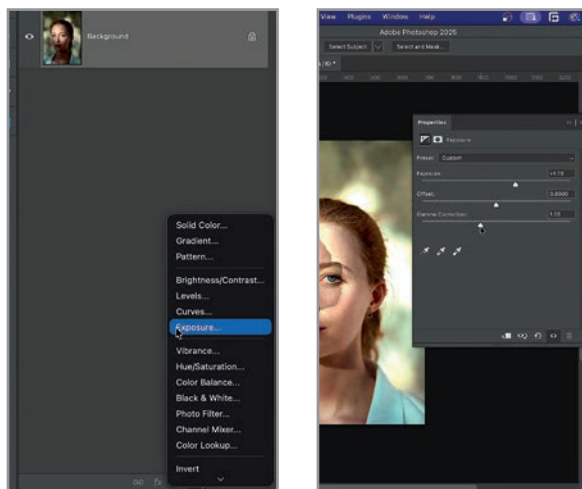
1. 보정할 사진을 Photoshop에서 열어줍니다.
2. 도구 모음에서 선택 브러시 툴 (Selection Brush Tool) 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A를 여러 번 눌러 변경)

2. Exposure 조정 레이어 만들기

1.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 새 조정 레이어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 → Exposure(노출) 을 선택합니다.

2. Exposure 레이어에서 다음 두 가지를 조정합니다.
- Exposure(노출) : +0.5 ~ +1.2 정도 올려서 그림자를 밝혀줍니다.
 - Gamma Correction(감마 보정) : 0.7 ~ 0.85 정도로 낮춰서 밝아진 부분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균형을 맞춥니다.

이 단계에서 너무 밝게 올리면 사진이 탁하거나 플랫해 보일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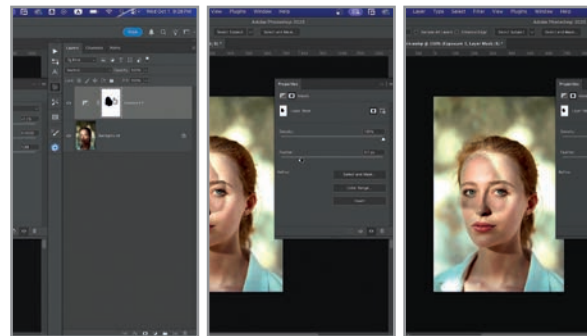
3. 마스크 다듬기 - 부드럽고 정밀하게

1. Exposure 레이어의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2. 상단 Properties(속성) 패널에서 Feather(페더) 값을 8~15px 정도로 올려줍니다.
-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페더를 주지 않으면 경계가 너무 딱딱하고 인공적으로 보입니다.

3. 이제 검은색 브러시(불투명도 30~50%) 로 마스크를 다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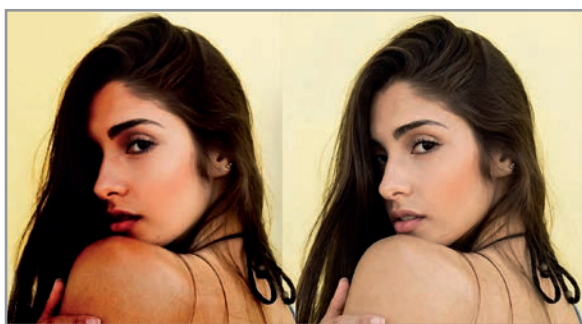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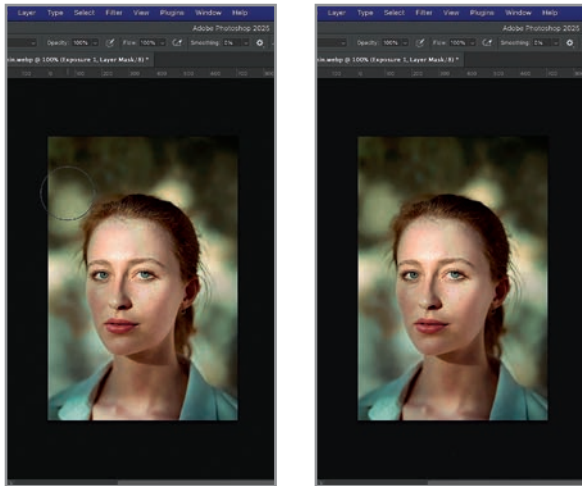
- 그림자를 제거하고 싶지 않은 부분(배경, 옷, 머리카락 등)에 검은색으로 칠해서 효과를 지워줍니다.
- 특히 피부와 배경의 경계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듬으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4. 최종 마무리와 Before & After

- 필요하다면 Exposure 값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Hue/Saturation 레이어를 추가해 색감을 보정합니다.
- 전체 Opacity(불투명도)를 80~95% 정도로 낮추면 더 은은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이 거칠어도 되고, 레이어 하나로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제품 사진, 풍경 사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범용성 높은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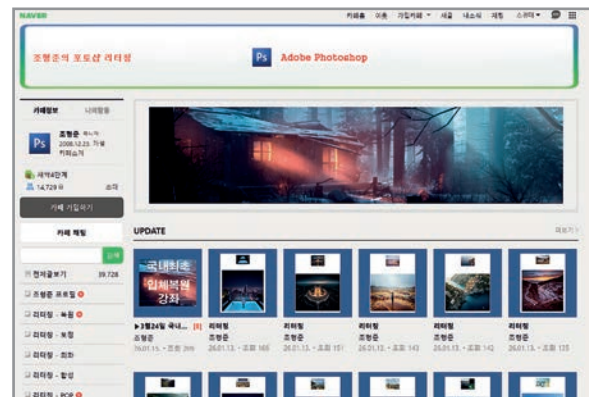
Before (강한 그림자가 있는 원본) After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제거한 결과)



〈조형준 강사 프로필〉

- 수상 경력:
 - 2006년 국내최초 사진 회화리터칭 전문가 과정
 - 2025년 국내최초 사진 입체 복원 전문가 과정
 - PPA 미국사진협회 7년 연속 수상 (포토그래픽 분야)
 - 독일 Digital Retouch Photographic 분야 수상
 - 캐나다 Digital Art Competition 국제공모전 대상
 - 유럽 International Photo ART 4RD Prize 수상
 - 서울경제 •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주관 NFT 대상
 - 서울옥션 • 업비트 NFT 사진분야 1위 수상
 - 할리우드 Weta Digital 컨셉아트 전문가부문 수상

- 강의경력:
 - 뉴욕대 사진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 아트웍 강의
 - 건국대 포토그래피 사진 아트웍 강의
 - 한성대 멀티미디어학과 아트웍 강의
 - 가천대 광고영상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조형준 포토샵 카페
HP : 010 5359 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 정정보도

2026년 2월호 40페이지 이봉희 작가를 조춘근 작가로 정정 합니다.